

[바 둑]

'초단들의 반란' 올해도 짝퍽~

이춘규·이현호·이원도 등 5명 한국바둑리그 본선 진출 성공 류동완 '괴물초단' 기대 한몸에

'초단들의 반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막을 내린 2008 KB한국바둑리그 예선전에서 초단들의 선전은 기대 이상이었다.

자동출진권을 가진 국내 랭킹 28위 이내 기사와 팀 자율지명자 8명, 예선 통과자 12명 등 바둑리거 48명의 윤곽이 가려졌다.

12명의 예선 통과자 가운데 류동완(19) 이춘규(19) 이현호(20) 이원도(19) 강유택(17) 등 5명이 초단이였다.

지난해 12월에 입단한 류동완은 3개월의 초단 연수기간이 끝나자마자 한국바둑리그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류동완이 한상훈 3단에 이어 '괴물 초단'의 신화를 다시 한 번 읊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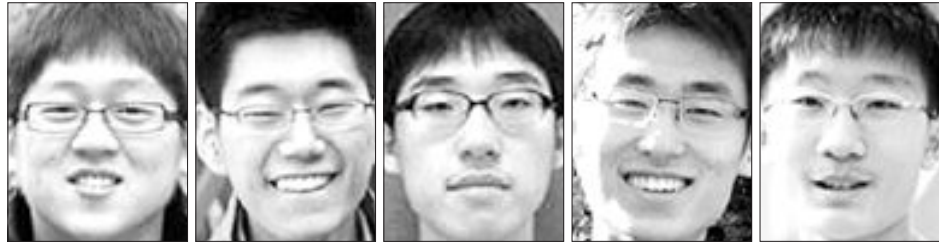
해 20살로 한상훈 3단처럼 늦게가 입단을 했다.

류동완과 입단 동기인 이춘규는 윤성현 9단, 윤현석 9단 등 지난 2007시즌에 뛰었던 선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본선에 올랐다.

김형환 4단, 박지은 9단을 물리치고 본선에 오른 이현호는 지난해 연구생 내신성적 1위로 입단한 기사. 한상훈 3단과 같은 김원 도장 출신이다.

이원도는 옥독진 5단, 서중취 2단을 이기고 본선티켓을 따냈다. 이원도 초단 역시 2007년에 입단한 기사로 본선진출 경험은 SK가스배 신예프로10결전이 유일하다.

장수영 도장 출신인 이원도 초단은 연구생 시절 최강 그룹에 속할 정도로 그 실력을 인



정받은 기사다.

1991년생으로 아직 고등학생 신분인 강유택 초단은 2007년 입단해 본격적인 참가는 한국바둑리그가 처음이다.

입단 전인 2003년 세계청소년바둑대회 주니어부에서 우승하는 등 어렸을 때부터 실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에는 제11기 SK가스배 신예프로10결전에서 배준희 초단이 당시 국수전 타이틀 보유자였던 윤준상 5단을 꺾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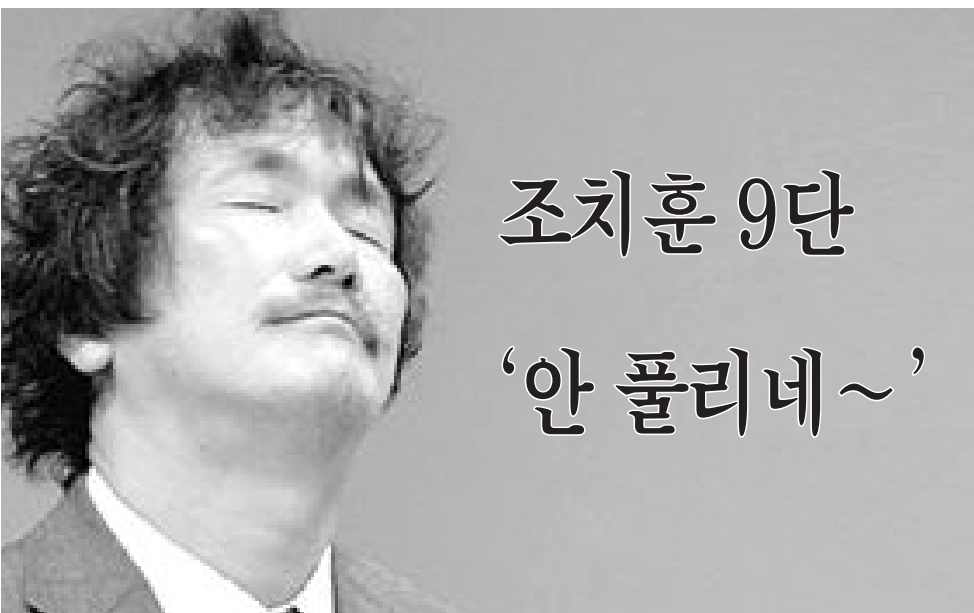
또 제51기 국수전에서도 최기훈 초단이 박정상 9단을 제압하는 등 초단들이 반란이 거뒀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난형난제의 호적수'

기우회 대항전 1보(1~10)

白 기용성 5단 (오로회) 黑 김희관 5단 (무석회)



조치훈 9단 '안 풀리네~'

日 십단전·기성전 부진 72번째 타이틀 잇따라 좌절

조치훈 9단의 72번째 타이틀 도전이 잇따라 좌절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52살이 된 조치훈은 젊은 프로 기사들에게 계속 지고 있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둔다"는 자신의 좌우명에 걸맞은 투혼을 보여주고 있다.

조치훈은 최근 제46기 일본 십단전에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제32기 일본기성전에서 졌다. 지난달 27일 일본 아이치현에서 벌어진 십단전 도전 2국에서 도전자인 다카오신지 9단에 102수만에 불계패를 당했다. 5국으로 벌어지는 도전전에서 2패를 기록, 한번만 더 지면 타이틀을 빼앗기게 된다.

그는 지난해 4월 아마시타 게이코 9단의 도전을 물리치고 십단전 3연패와 함께 생애 통산 71번째 타이틀을 획득했다.

또 일본기성전 도전 7경기 최정국(7국)에서도 타이틀 보유자인 아마시타 게이코 9

단에 258수만에 불계로 졌다. 하지만 이 대회에서 그는 1-3으로 뒤지던 전적을 3-3 동점으로 만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발휘했다. 기성전 사상 11번째 최종국까지 가는 혈전이었다.

그는 제23기때 고바야시 고이치 9단의 도전을 4-2로 물리치고 4연패를 달성한 후 제24기때 왕리청 9단에게 타이틀을 빼앗겼다. 이후 8년 만에 도전권을 획득하며 기성타이틀을 노렸지만 결국 실패했다.

한국기원 관계자는 "일본 역대 최다 타이틀을 획득하고 있지만 도전을 멈추지 않는 조치훈의 바둑인생은 국내 후배 프로 기사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면서 "고령으로 인해 최근 잇따라 패배하고 있지만 생애 72번째 타이틀을 따기 위한 그의 도전은 국내 바둑 팬들의 흥미로운 볼거리"라고 설명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전통의 기전들 사라지나

'국수전·왕위전' 후원기업 없어 무산 위기

한국의 대표적인 바둑 경기인 국수전과 왕위전이 자칫 대회를 열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당초 지난 1월 시작해야 할 제52기 국수전과 지난 3월에 개막 예정이었던 제42기 왕위전이 후원기업을 찾지 못해 늦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적자와 홍보효과 저조 등을 이유로 후원계약을 잇따라 철회했기 때문이다.

한국기원 등은 다른 후원기업을 찾고 있지만 4월 현재 마땅한 기업체가 나설지 않고 있다.

국수전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전. 2000년에는 중국에서 온 루나이웨이이가 조훈현을 누르고 타이틀을 따내며 여성이 우승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당시 영부인이었던 이회호 여사가

직접 축전을 보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대단한 뉴스였다.

국수전은 기전 규모와는 상관없이 모든 프로 기사들이 영예롭게 여기는 타이틀이었고 국내 일인자를 상징하는 대회였다.

왕위전은 이창호와 이세돌의 대결로 국내 팬들에게는 가장 인기있는 경기다. 왕위전의 현 타이틀은 이창호 9단이 가지고 있다.

그는 1996년부터 12년 연속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이세돌의 도전을 모두 3승2패로 막아낸 2002년과 2004년의 대결은 아직도 대표적인 명승부로 기억된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이세돌, 6개월 연속 프로기사 랭킹 1위

이세돌 9단(사진)이 6개월 연속 프로기사 랭킹 1위를 지켰다.

이세돌은 4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프로기사 월간 랭킹에서 1만5천656점을 얻어 1만3천683점에 그친 이창호 9단을 따돌리고 6개월 연속 최고수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창호는 지난달 열린 춘란배에서 한관밖에 두지 못해 530점이 줄었다. 이세돌 역시 춘란배에서 탈락하는 등 부진을 보여 588점이 하락해 두 기사의 격차는 1천973점으로 좁혀졌다.

3위에는 박영훈 9단(1만2천614)이 올랐고, 목진석 9단(1만2천223)과 조한승 9단(1만1천868)이 각각 4위와 5위를 지켰다.

원성진은 강동운을 7위로 밀어내며 6위로 자리바꿈을 했고, 백승석은 지난달보다 한 계단

상승하며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

한편 바둑황제 조훈현은 지난달보다 세 계단 오른 15위를 차지하며 노의장을 과시했고, 40대의 유창혁도 20위에 올라 견제함을 보였다.

여류기사 중에서는 조혜연 7단이 36위로 지난달에 이어 최상위를 차지했고, 박지은 9단은 세 단계 상승하며 45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한국외대, 대학 챔피언 등극

보노겐배, 한양대 꺾어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대학바둑 최정상 자리에 올랐다.

한국외대는 지난달 30일 막을 내린 제2회 보노겐배 대학동문전 결승에서 한양대를 제압하고 우승했다.

한양대는 지난해 우승팀, 4강

팀이었던 고려대와 부산대 등을 잇따라 제치고 결승까지 오르는 투혼을 보였다. 에이스 한이탁이 예선전에서 선전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지만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또 3·4위전에서는 서울대가 부산대를 눌러 3위를 차지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의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도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어 합니다.
국제약품은 모든노 살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멘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 및 보충
- 동맥경화, 관상동맥 질환, 심혈관 질환 예방
- 노년 근력감퇴 예방, 근육 강화
-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고중성지방 예방
- 면역기능 강화, 체중 조절
- 항노화, 항암 예방, 피부 건강
- 항노화, 항암 예방, 피부 건강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nicepharm.co.kr

아연의 보충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